韓国食品工業의 課題

金 立 三

全經聯·常任副會長

1. 食品工業의 特徵

一般的으로 食品工業이라고 말할 때는 食料品産業에 있어 生産, 加工, 消費中 加工段階만을 그 對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嚴密하게 본다면 品質維持(Preservation),加工(Processing)과 包裝(Packing)을 包含하는 廣範圍한 工業인 것이다. 이같이 廣範圍한 理由는 食品工業의 素材가 動植物이기 때문에 腐敗性이 强하며 季節性과 이에따른 保存性 貯藏性이 問題視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氣候, 風土등 自然的인 條件으로 地域的인 限界性을 가지기 때문에 空間의 限界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輸送 乃至 運送性 또한 食品工業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하나의 要因은 食品의 기호성이 食品工業의 發展패턴을 擴大發展 또는 制級시키는 重要한 要因으로 作用하는 것이다. 그 例로서 米穀을 主食으로 하는 地域, 小麥을 主食으로 하는 地域과의 食品工業의 發展 패턴은 아주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20世紀에 들어오면서 國際交流의 活發化로 인해서 一面에 있어서는 食生活의 同質化傾向을 나타냄으로써 食品工業의 發展역시 점차 같아지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兩次 經濟開發에 따른 國民所得의 增加와 이에따른 加工食品에 대한 消費의 增加로, 또한 輸送手段 및 貯藏工業의 出現으로 食品工業은 이제 本格的인 發展段階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쌀을 主食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쌀의 非加工性으로 食品工業發展에 커다란 制約要因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即 小麥의 경우는 빵, 비스켓트 등 2次加工을 통하여 食卓에 오르므로써 大規模製粉工場의 成立을 加能케 하며 同時에 그는 副産物의 畜産業의 發達이라는 것을 招來하게 되었으나 米穀은 그와같은 大規模化에 의한 産業資本에로의 轉化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食品加工工業은 酒流 및 淸凉飮料를 除外하고는 間食用으로 어린이가 需要層의 主流를 이루는 樣相이 그 特徵이라 하겠다. 이같은 食品工業의 特徵을 보다 具体的으로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2. 食品工業의 現況

우리나라는 60年代前까지만 하더라도 美國援助에 依해 餘他 重工業은 極히 微弱한 狀態에 있으면서도 食品工業은 우리의 消費 패턴이 米中心에도 불구하고 製粉 製糖등의 急速한 發展을 이루었으며 經濟開發의 積極的인 推進으로 國民所得이 크게 向上됨에 따라 지금에 와서는 完全한 基盤을 굳히고 있다.

表1 食品工業의 産業上比重 (1970年末 現在)

	製造業	飮食料品 연초제조업	比重(%)
事業体數(個)	24,114	5,156	21.4
從業員數(員)	861,041	117,327	13.6
生産額(千원)	1,334,514,499	294,609,764	22.1
附加價値(千원)	549,793,324	141,134,636	25.7

資料:經濟企劃院「鑛工業조사통계보고서」

우선 70年 現在 産業上比重을 본다면 附加價値生産額面에서 全製造業에 占하는 比重은 25.7%로 14 1,134백만원에 達하고 있으며 生産額面에서는 22.1 %를 占하고 있다. 또한 雇傭面에서 보더라도 全製造業의 13.6%를 占하고 있는 117,327名을 包容함으로써 그 産業上 比重은 莫重한 것으로 判斷된다.

한편 産業生産의 指數로 보면 1971年現在 製造業平均은 370.0을 보이고 있으나 食料品의 경우는 37 3.6으로 全製造業 伸張率을 上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生産 및 産業上比重이 높은 理由는 家庭의 食生活의 變化로 因한 加工食品의 需要增加때문이며 需要增加의 敎育水準의 向上으로 인한 食生活의 簡便化, 大家族主義制度의 붕괴, 女性勤勞者의 增加, 아파트生活樣式의 普及등이 그 要因으로 파악된다.

表2 年度別飮食料品生産動向 (1965=100.0)

	製造業	食料品	飮料品
1966	124.4	117.7	127.0
1967	161.8	159.2	157.8
1968	217.9	193.3	168.8
1969	265.3	269.1	208.5
1970	309.3	305.0	259.6
1971	370.0	373.6	320.9

資料 : 經濟企劃院

이같은 需要의 增加動向을 計數的으로 파악해 본다면 71年中 總民間消費支出中 54.1%에 해당하는 1,245拾億원이 飮食物費로 支出되었으며 70年에 比해 24.3%라는 높은 需要增加를 보여주고 있다. 勿論 이중 穀物의 消費를 除外한다면 總消費支出에 占하는 比重은 28.6%를 나타내고 있으며 伸張率面에 穀物의 消費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點(31.8%增)에서 加工食品의 消費가 相對的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은 農村의 곡물 消費의 增加때문이며 加工食品의 主市場인 都市에 있어서는 그 反對現象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國際的으로 그 水準을 比較하여 본다면 우리나라의 飮食物의 消費構造는 營養의 大部分을 쌀

表3 民間消費支出 推移 (單位 : 10억원)

	1970		1971		增加率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民間消費支出	1,846,61	100.0	2,302.77	100.0	24.7
飮食物費	1,001,87	54.3	1,245.00	54.1	24.3
(곡 물)	(445.21)	(24.1)	(586.66)	(25.5)	(31.8)
住居費	132.22	7.2	155.67	6.8	17.7
光熱費	80.82	4.4	101.39	4.4	25.5
피복비	200.22	10.8	274.07	11.9	36.9
雜費	431.48	23.3	526.64	22.8	22.1

資料 : 韓國銀行

에서 취하는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即 1人當 營養水準을 본다면 歐羅巴나 美國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日本만 하더라도 營養섭취의 澱粉依存度가 58.1%밖에 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89.6%라는 엄청난 依存度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表4 1人当 營養水準의 国際比較

	熱量		蛋白質			脂質
	全量 (cal)	전문식품구성비 %	全量 (cal)	동물성類	전담백질중구성비%	(g)
美國	3,200	23.2	95.6	68.6	71.8	151.8
英國	3,150	28.7	87.5	53.8	61.5	140.0
西獨	2,960	30.7	80.9	52.0	64.3	136.2
日本	2,452	58.1	75.6	29.5	39.0	47.6
台灣	2,520	67.7	68.2	23.9	35.0	58.7
韓國	2,581	89.6	72.9	11.7	16.0	21.5

資料 : 食品工業協會

따라서 우리나라의 食品工業은 發展途上에 있으며 工業化로 인한 都市化가 進展된다면 食生活의 變化로 보다 많은 市場을 開拓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문제점과 改善方向

그러나 우리나라의 食品工業은 價値判斷의 餘地는

있겠으나 쌀偏重消費構造, 規模의 零細性과 이에 따른 各種 加工食品에 대한 一部消費者의 不信, 一部食品原料의 海外依存性過多, 콜드체인등 流通体系의 未整備, 技術開發의 未洽으로 인한 韓國的加工 食品의 未開發등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

첫째로 食生活에 있어서 쌀偏重消費構造로 因한 市場의 制限性이다. 勿論 西歐 食生活의 主가 빠다와 빵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도 꼭 그렇게 할 必要가 있느냐에는 의문의 餘地가 있으며 實際的으로 쌀은 취사의 간편성이라든가 加工度없이 그대로 우리의 食卓에 오를 수 있는 長點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食品의 인스탄트化 및 商品化라는 點에서는 쌀은 많은 脆弱點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쌀의 加工度를 높여 商品化할 수 있는 技術開發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加工度가 높은 他食品으로 消費代替를 조장하는 것이 食品工業의 發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로는 規模의 零細性으로 인한 競爭의 過多와 이로 인한 食品의 不良化傾向이다.

表5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全食品業体중 94.5%가 49人以下의 從業員을 雇傭하고 있으며 이에 反해 外國은 規模에 있어서 우선 韓國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다가 質的인 面에서 先進國에서는 工程自体가 自動化되어 있다는 것을 勘案한다면 營業單位는 아주 低位에 있다고 判斷된다.

이같은 零細性은 生產製品의 質이 均質化되지 못하며 資本力不足으로 인한 不良食品의 범람은 消費者로부터 加工食品에 대한 不信傾向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根本的으로는 食品業体의 大型化가 要求되며 當局 또한 不良食品에 대한 단속이 철저를 期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는 原料의 海外依存性에서 오는 食品工業基盤의 脆弱性이다.

食品原料에는 勿論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製빵, 라면, 과자등 廣範圍한 利用度를 가지고 있는 小麥의 導入實績을 본다면 70年 現在 1,158,444M/T 였으며 이의 對外依存度는 76.5%에 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높은 原料의 海外依存性은 食品工業發展에 커다란 制約要素이며 이를 脫皮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小麥과 같은 利用度가 높은 原料는 適期導入을 통한 原料價의 安定이라는 것도 重視되어야 할것이다.

表5 事業体規模의 国際比較

	1～9人	10～49人	50～99人	100～499人	500人이상	1000人이상	計
韓國	63.8	30.7	19.8	13.3	0.5		100.0
西獨	56.0	28.0	8.0	7.0	1.0	0.2	100.0
英國	36.0	38.0	10.0	13.0	2.0	1.0	100.0
스웨덴	60.0	32.0	5.0	4.0	0.3		100.0
	(1～19人)		(20～99人)				
日本	90.5		8.2	1.2	0.08	0.02	100.0
美國	64.5		26.4	8.2	0.6	0.3	100.0

資料：東洋經濟新報社「食品工業」

註：韓國은 鑛工業統計로 1970年値, 其他는 1965現在임.

끝으로 流通体系의 再編을 통한 食品의 變質 防止와 中間「마진」을 最大限 排除하는 方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世界 食品工業의 發展 페턴은 一面에서는 신선도를 維持하는 流通經路의 構築과 他面에서는 통조림形態의 高保全性이라는 兩面的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不幸히도 우리나라는 流通業体의 未備로 또한 냉장고와 같은 貯藏庫보급의 미발달로 冷凍체인을 제대로 形成하고 있지 못하며 高保全性食品工業 역시 이제 發展 段階에 進入한 程度에 끝이고

表 6　　食品原料의 輸入動向

	小麥(M/T)			原糖(千美弗)
	生産	輸入	輸入의존도	
1966	315,333	593,104	65.3	5,433
1967	309,843	850,550	73.3	8,964
1968	344,976	1,101,084	76.1	10,136
1969	365,648	1,440,248	79.8	17,454
1970	356,815	1,158,444	76.5	23,478

資料 : 韓國의 産業 1971年版(下)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改善이 시급히 요청 되고 있다.

4. 맺는 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食品은 季節性이라는 時間的制約과 自然條件 風土, 그 地域住民의 기호에 의한 所謂 空間的인 제약을 많이 받는 産業中에 하나이다. 이 時空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食品만 開發한다면 공전의 發展을 할 수 있는 業種인 것이다.

따라서 食品工業界는 무엇보다 위의 制約을 초월할 수 있는 技術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日常生活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低廉性과 人体의 無害性이 保障되어야 하는 것이다.

特히 食品工業은 國民의 体位를 形成하는 工業임으로 적어도 安全한 食品, 믿을 수 있는 食品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막뉴스

펩시콜라 소련에 진출

昨年初부터 우리나라에서 韓美食品工業(株)에서 生産市販케된 펩시콜라는 그 동안 놀라운 販賣実績과 優秀한 商標 이메이지로서 韓國에도 널리 알려진 淸涼飮料로 嶺南一帶를 카바할 釜山과 湖南一帶를 카바할 光州等에 새로히 近代化된 會社를 設立토록 活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目下 世界의 淸涼飮料 로 君臨하고 있는 펩시콜라株式會社(本社)의 社長은 Mr. 켄달이다. 그는 美國貿易緊急委員會(ECAT) 會長이며 또한 美大統領의 任命에 의한 美國實業人聯盟의 會長職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1969年 5月에는 리처드 닉슨 財團의 理事로도 任命된 바 있는 매우 活動的인 人物이다.

그는 現 美國 닉슨大統領과의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들의 交友關係는 1959年 여름 소련에서 모스코바 博覽會가 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펩시콜라의 海外部門社長職에 있었던 Mr. D. 켄달은 美國 淸涼飮料界의 先峰으로 펩시콜라를 東歐羅巴 淸涼飮料市場에 進出시킬 目的으로 博覽會場에서 積極的인 活動을 벌렸으며 큼직한 펩시콜라 廣告塔도 세웠었다. 그 당시 劃期的인 成功을 거두라는 펩시콜라 本社로부터 强力한 要請을 받고 "나는 후루시초프 손안에 펩시콜라 병을 쥐어 주어야 하고 또한 그 場面을 寫眞찍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는 말하고 그때 모스코바를 訪問中에 있었던 당시의 닉슨 副統領과 協議한 結果 닉슨 副統領은 "걱정 마시오. 내가 후루시초프를 펩시콜라 展示場으로 데리고 올테니"라고 快諾하고 실제로 후루시초프로 하여금 펩시콜라를 마시게 했으며 때를 놓치지 않고 카메라의 셔터를 일제히 누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많은 宣傳効果를 보았던 것이다.

이를 契期로해서 自由世界에서 生産되는 淸涼飮料中에서 처음으로 쏘련에 上陸하게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